

법구
 돌 사람이 피리치고
 나무 사람이 줄고 있음이여
 범부들은 자기의 상됨을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계일 뿐 나의 본수가 아니라고 한다.
 -경허집-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화·단청 기록영화화

사람이나 공예 등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는 단청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미술의 하나다. 고도의 회화적 기량이 요구되는 까닭에 단청은 미술의 원초적 모습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우리 회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성행했던 단청문화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사실은 우리 단청의 보존과 계승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 준다.

이러한 단청과 불화의 전통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원형기록물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영화제작에 불화의 대가인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스님(93세)과 석정스님(74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만봉스님은 지난 8월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봉선사에서 초(草) 그리기부터 색칠하기까지 단청의 모든 과정을 담은 작업에 들어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만봉스님은 이번 작업 과정에서도 한치의 떨림도 없이 최고수의 경지를 드러내 보여 관계자들을 감탄시켰다 한다.

석정스님은 지난 9월부터 통도사성보박물관 명선당에서 매주 토요일 영산화상도 탱화 제작

의 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석정스님은 단순히 탱화 제작과정만 뿐만 아니라, 탱화의 완성이후 배접하는 방법과 복장, 점안식에 이르는 모든 의식의 과정을 기록영화로 담아내기 위한 작업을 직접 해보이고 있다.

석정스님의 기록영화 작업을 맡고 있는 무형문화재 자문위원 광동해씨(광화가는 '현재 탱화의 제작에서 점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도 드물고, 이들 노장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기록영화로 남기기 위해 스님께 부탁을 드렸고, 스님께서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고 힘든 작업을 흔쾌히 해주신다'고 말했다.

보존 계승해야 할 전통문화가 비단 단청분야 뿐 만이 아니다. 영산재나 불상조각, 사찰건축 등 불교문화는 물론이고, 오늘날 그 맥이 끊어져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작업들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은자(취재 2부 기자)



총체극 '고려의 아침' 2002년 월드컵 문화예술공연으로

대장경 평화염원 '세계로'

팔만대장경에 담긴 평화와 인고의 정신이 인류 보편의 가치로 세계인의 가슴에 담긴다. 초대형 총체극 음악극 '고려의 아침'이 2002년 월드컵 기념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음악, 연극, 무용 등 독립된 쿠대 예술의 여러 장르를 아울렀기 때문에 총체음악극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 작품은 2002년 5월 25일~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야외무대에 정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팔만대장경의 조성 동기와 과정이 소재이자 주제다.

고려시대의 불교 사상과 미학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펼쳐는 '고려의 아침'은 13세기 한국 문화와 평화 사상을 인류 공통의 언어인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제작의 의도다. 새벽 산사의 풍경소리, 싹크로 드물 달려오는 몽고군의 말발굽소리, 아수라의 비명과 그에 대비되는 천상의 합창 등 '고려의 아침'에서 선보일 음악은 국악선율의 비장한 정서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선율이 어우러진다. 팔만대장경속에 담긴 진정한 평화의 힘을 노래하고, 고려인들의 뼈를 짚는 고통과 인내를 재현함으로써, 파괴와 경쟁으로 물든 21세기 인류를 향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과 공존의 의미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예술단 신선희 단장이 극본을 쓰고, 이병훈 박일규 신선희 씨가 공동연출하는 '고려의 아침'은 제1부에서 몽고군의 침략을 탐들이 하는 호국법회로 극복하려는 고려인들의 모습과 고려 해명공주와 판각수 거인의 사랑을 그려낸다. 제2부에서는 고려 연등회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완성을 앞둔 팔만대장경 판각당에 몽고군이 불을 지르자 대장경판을 구하려 벌일

속에 들어가 목숨을 잃은 해명공주와 대장경 완성을 위해 배를 타고 강해를 떠나 남해로 향하는 판각수들의 이야기로 막을 내린다.

인류 공존의 의미 '부각'

한편 '고려의 아침'은 월드컵 개막 직전에 펼쳐질 내년 본 공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야외무대에서 시범공연으로 제1부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서 고려의 아침'은 무용과 음악을 통해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극중 인물들 간의 갈등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처진 느낌을 주는 인무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예술단 연출진은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출연진을 보강하는 한편 아직 완성되지 않은 2부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 세계인에게 선보일 '고려의 아침'은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es@buddhista.com

공무원 불자 네트워크 추진

공무원 불자 네트워크 추진
 공불련 1주년 법회 홈페이지 오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공불련)는 140여 불자와 2천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6~7일 합천 해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불련은 공식 홈페이지(gongbulryon.com)를 오픈하고, 공불련을 상징하는 연꽃 모양의 마크와 배지를 제정하는 불자심명제를 천명, 온 오프(On Off) 라인 상에서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을 하나로 묶고 군 읍 권 단위까지 불자회를 확대시키겠다는 제 2도약을 결의했다.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통해 선보인 홈페이지는 △단체소개 △불교기해하기 △사찰을 찾아서 △사이버법문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공불련은 공무원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단체를 소개하는 등의 신행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공불련은 '단체소개' 메뉴를 통해 정 부부처 및 각급 행정기관 내 불자회 유무를 밝혀, 불자회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아직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고 있는 각 부처 불자회 결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아정진, 반아심경 경관 정대불사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 공불련 창립 1주년 기념법회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현재 대통령이 직장 직능신행단체의 기념법회에 축하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차츰 정부부처 및 각급 기관 안팎에서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수험생 부모의 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6일 서울 북한산 삼천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다. 수험시험일이 가까워 오면서 전국 대부분 사찰에는 수능기도를 올리는 부모들의 발길이 모이지고 있다.
 삼천사=고영배 기자

장군족비

- ◇돈 없는 스님은 재가 두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스님도 '소유' 허용해야 한다.' 돈이 힘쓰는 구조부터 고치자. (2면)
- ◇꽃 들 맞는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47개 단체에서 140여 개 단체 연합체로 급성장. 불심 담은 공무원 보살도 실현하기를. (3면)
- ◇영취산서 설립하시는 부처님, 영산재에 실려 세계를 누빈다. 누구나 지금 여기 서 부처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한국불교의 힘. (5면)
- ◇한국인 평균 수명 74.9세. 노령화 사회로 진입. 노년층 신도가 많은 한국불교. 노인들의 판다리가 되어드릴 준비는 돼 있는가? (10면)

"문화유산해설사 영역별 세분화 하자"

조계종, 문화부에 제의

조계종은 현재 각 지자체가 문화유적지에 배치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를 각 영역별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계종은 5일 문화관광부에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 제46조 5항과 6항에 규정된 '문화유산해설사'를 불교, 유교, 민속, 무형 등 각 문화유적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개정입법추진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도 각 영역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원우 기자

추석연휴로 금주 12면 감면발행

중국 하남·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해호, 임축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가겠다.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 인도어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전파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중국 최고(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한상을 천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왕릉인 병마유을 비롯 부처님 진신지골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청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6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 단 여권 수수료는 별도)
 ◇접수일: 10월31일(월)까지
 ◇접수시간: 10월6일(토)까지
 ◇여행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 (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아주세계여행사 ●후원: 중국하남여류집단유한공사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개시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 발행 100원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은행이나 기타 카드(대환을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 발행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도 6개월 0%에 환급서비스를 포함하여 500원 이상의 사용 실적에 있을 경우 7000원까지 현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말아름, 스키세이름, 사회복지같은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후원합니다.
- 은행명, 고도수, 명품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익사업등기 등 이를 후원할 수 있는 기회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는 불자적인 행동을 알릴 수 있도록 후원하는 현대불교신문 자선이나 이바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금주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평소나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기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일드타워 1115호